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⑱ 라훌라 출생과 위기의 야수다라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지 6년째 되는 해에 아들 라훌라가 출생한다. 아버지 없이 나온 왕자이기에 석가족은 크게 노하고 야수다라와 라훌라를 죽이려 한다. 이에 야수다라는 스스로 왕자와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다.

"내가 정당하다면 하늘이 증명하리라"



그림 · 강병호

이번 연재부터는 터키에서 쓰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에서 쓰는 불교 이야기라니 멋지지 않은가. 터키에서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에 오니 박사 연구원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직접 찾아와 이야기 한다. 이슬람 사회에서 미래 불교학자가 탄생할까. 마침 석가모니의 아들 라훌라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다. 불교에서 6이라는 숫자는 '6년 고행', '육도(六道)윤회', '육바라밀'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6년의 의미는 태자의 출가에 맞춰 아들 라훌라가 그 6년 뒤 출생이 전생의 6리와 6일의 인연담으로 이어진다. 신기하게 내가 근무하는 터키 대학의 대표 전화번호 뒷자리가 '6666'이다. 21세기에 이슬람의 나라에서 불교와의 만남이 6이라는 반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라훌라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이야기는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 지 여섯 해가 지난 뒤 아내 구이가 갑자기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무슨 연유인지 〈석보상절〉 3권 36장부터 '구이'는 '야수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물론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간간이 야수(다라)라고 씌어져 왔다. 아마도 저본으로 참조한 경전 〈잡보장경〉 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구이'는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인 '선혜보살' 당시 세세생생 배우자가 되기로 약속한 야수다라 전생의 이름이므로 동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쯤에서 바로 잡기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라훌라의 출생

태자가 출가하신지 여섯 해째에 야수다라가 아들을 낳으셨다. 태자가 출가하신 해 말고 여섯 해이니 부처의 나이 스물 다섯이다. 주나라 소왕 50년(B.C.946) 무인이다. 야수다라는 꽃빛이라 하는 말이니 구이를 말한다. 이 아들이 그 라후라이니 다르게 말해 라운이라고도 한다,

석가씨 종족들이 노하여 죽이려 하였다.

야수가 불피운 구덩이 앞에서 맹세하시되 '내가 잘못했으면 아기와 내가 함께 죽고 옳다면 하늘이 증명(本證)을 하시리라'하시고 아기 안고 뛰어드시니 그 구덩이(교窖)가 연못이 되고 연꽃이 몸을 받거늘 왕이며 나라의 사람이 그제서야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태자가 출가할 때(〈월인천강지곡〉 46장) 이미 출가 이후 여섯 해째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한 바 있다. 그리하였어도 가비라국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거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부처의 나이 스물 다섯이라고 한 건 지난 17번 째 이야기에서 29세에 출가했다는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 이 또한 19세 출가설의 경전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석가모니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고 있다. 〈석보상절〉의 치밀한 구성에 비하여 이 장에서는 구이가 야수로 바뀌고 19세 출가설이 서술되는 등 파격이 많은 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에게는 연구할 아이템이 많은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주나라 소왕도 재위 24년 B.C977년에 죽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재위 50년으로 나오고 있다.

어쨌든 태자 출가한 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야수다라가 갑자기 아이를 낳은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왕손을 보게 된 할아버지 정반왕은 그야말로 오매불망 바라마지 않은 일이었으나 아비 없이 태어난 손자라니…. 이제 석가씨들은 이 모자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하필 이 차제에 야수다라의 의미가 '꽃빛'이며 구이와 동일인이라고 밝힌다. 〈월인석보〉권1에서는 구이의 의미를 '구이'가 밝은 여자라고 풀이하였다. 구이가 태어나실 때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집만 광명이 비쳐서 그렇게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꽃답고 환히 밝은 우리의 야수다라이자 구이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라후라의 이름도 '잘못 말해' '라운'이라고도 한다고 본문에 주석을 달았는 데 문맥상 '다르게 말해'라고 풀이하였다.

야수다라의 범상치 않음은 앞의 이야기에서 익히 보아왔다. 싯달타와 여러 훤훤장부들과의 경쟁에서 결혼을 위해 싯달타에게 자신은 보배가 아닌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태자의 출가 사실을 안 후 격렬하게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이제 그토록 원했던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실과 친척들의 의심을 받자 그는 보란 듯이 불구덩이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뛰어든다. '내가 정정당당하지 않게 아들을 낳았다면 벌을 받아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증명하리로다' 하고 일갈한 후에 말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 진일보이다.

> 태자 출가 후 6년뒤에 라훌라 탄생
> 뒤늦은 출생은 라훌라 전생의 업보
> 석가족, 아버지없는 왕자에게 노해
> 야수라다, 불에 뛰어들어 결백증명

과연 모자가 뛰어든 불구덩이는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변하여 연꽃이 그들을 받치니 그제서야 그 왕과 나라 사람들이 이 신이한 일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6년 후에 태어난 이유

6년이란 지체가 다 원인이 있었다. 〈월인천강지곡〉은 늦게 태어난 이유를 함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사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석보상절〉의 서사를 읽고서야 노래가 이해되는 것이다. 불교 게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 오십구장

야수(구이)가 전세(前世)에 용변 보기를 핑계로 6리(六里)를 뒤처지시므로 6년을 태자 못 낳으시니

라운(라훌라)이 전세에 6일 동안 죄인 가둔 것을 잊으셨으므로 6년을 못 태어나시니

이 내용도 문맥을 보충해서 쓴 게 이 정도이다. 실제 석보상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운이 전생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도사가 조그만 죄를 짓거늘 그 왕이 동산에 들어오게 하여 잠깐 가두라고 하고는 잊어버리고 엿새를 가두었다. 그 인연으로 이 생에 태어날 때 여섯 해를 나오지 못하였다.

야수는 전생에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길이 멀어 벅차 뒤보는 일을 핑계 삼아 자기 짐을 어머니께 맡기고 일부러 떨어져 6리를 가시니 그 인연으로 여섯 해를 잉태하여 낳지 못하였다.

라훌라(라운)가 전생에 어느 나라 왕이었을 때 한 도사(수행자)를 잠시 가둔다는 게 엿새나 가둔 과보로 6년을 뒤늦게 태어났다는 발상이 흥미롭다. 엿새가 여섯 해가 되는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오는 숫자인가. 야수는 한 술 더 뜬다. 전생에 엄마와 짐을 들고 길을 가다가 너무 멀어 가기가 벅차 잠시 용변을 본다는 핑계로 짐을 맡겨 6리를 뒤처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6년 동안이나 출산이 지체되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와 함께 가는 길에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꾀 좀 부렸다고 6리를 6년으로 환산하는 셈법이라니…. 그래서 〈불본행집경〉을 찾아보았더니 딸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더 크고 무거운 짐을 들려 걷게 하였다는 반전 스토리가 실려있다. 라훌라의 경우에도 한 수행자가 남의 물을 허락없이 마시고 작은 잘못도 잘못이라고 스스로 벌해 달라고 하였는데 엿새나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치명적인 딸의 실수이거나 수행자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귀엽게 봐 줄만한 일상의 에피소드들 아닌가.

살아오는 동안 고의든 실수든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으랴. 이걸 다 따져서 다음 생에 몇 년이나 일이 안 풀릴거라 생각하면 아뜩하지 않은가. 어느 때는 한없이 자비롭다가 어느 때는 가혹하다 싶을 만한 전생담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육십장

라운이 태어나시거늘 구덩이 파고 불 피우니 임금과 신하가 의심하신 것이니

야수가 들어가시니 구덩이에 물이 차고 연꽃이 피니 임금과 신하가 의심 아니 하시니

〈월인천강지곡〉은 다시 이렇게 노래한다. 어렵사리 라훌라가 태어났지만 왕실과 나랏 사람들은 야수다라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불구덩이를 만들어 모자를 죽이려 한다. 야수다라는 결백하기에 스스로 뛰어든다. 저 불이 물이 되고 연꽃이 피어 모자를 사뿐히 받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야수다라의 위풍당당함은 이러한 점에서 싯달타 태자 못지않다. 게다가 혼자 몸도 아니고 갓 태어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왕자를 안고 말이다.

돌이켜보면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제 와 생각하니 불구덩이에 뛰어들던 시절이 있으리라. 처음엔 그것이 불구덩이가 아니라 극락이라 생각하고 뛰어들었건, 정말 연꽃 가득한 연못이었는데 차츰 말라 지옥 같은 불구덩이가 되었건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시간은 한 두번쯤 있기 마련이다.

문득 야수다라의 화려한 결혼과 원치 않는 별거, 지체된 출산이라는 이 일련의 스토리텔링이 어쩌면 그에게는 결혼 자체가 아름다운 허상에 불과한 불구덩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혼과 비혼이 많아지는 이즈음, 이 선택이 과연 연꽃 핀 연못일까 가늠해본다. 아닐 것이다. 불구덩이와 연못은 사실 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불구덩이가 되기도 하고 연꽃 핀 연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석보상절〉의 이야기가 21세기에도 울림이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